

복음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다

이사야 26:19, 마가복음 5:1-20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된다.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이 병들어 있다. 지금도 내가 명하면 병이 떠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러면 수많은 의과대학과 의사들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병이 안 떠나는가 싶다. 그때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많은 분량을 의사와 병원에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도 기도하고 명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때보다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믿음을 생각하며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시기 바란다. 어떤 탭렌트가 마약을 하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하고 죽게 되었다. 사드 배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도 다 핵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는 사드를 두 군데에 설치했는데, 러시아, 중국이 하지 말라고 하니, “내 나라를 우리가 지키겠다는데 너희가 왜 간섭이냐?”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인데, 이것 설치한다고 반대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데모를 하고,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국무를 책임진 총리를 여섯 시간 반이나 감금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가서 물어보니까, 주민들은 사드가 뭔지도 모르고, 왜 반대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세력들이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제주에 해군 기지를 만든다고 하니 가서 반대 시위를 하고, 세월호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닌데, 이것을 꼭 음모를 꼬집어내어서 나라를 어렵게 하더니, 이번에는 성주군민들을 대단히 위하는 척 하면서 또 달려간다. 이런 악령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있다. 악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판단을 잘 해야 한다. 빌립보서 1:9-10에서, 바울은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한다. 성령의 완벽한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다. 세계 한 쪽에서는 인종 차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 수십 명이 트럭에 치여서 죽는데, 목격자의 말로는 불링 편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어가더라고 했다. 육신의 질병도 심각하지만, 정신적 질병과 영적 질병으로 전 세계는 크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병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치유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기를 바란다.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병들어 있는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한다.

1. 병들어 있는 현장의 모습 세 가지

첫째는 현장이 어떻게 병들어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세 가지 병들어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1) 첫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5:1-20의 내용인데, 세상 학교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악령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귀에게 잡혀서 정신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 총을 쏘서 수십 명의 무방비의 사람들을 수십 명 죽이는 일이 제정신으로 한 일이겠는가? 차를 타치는 대로 몰아서 어린이까지 깔아뭉개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한다. 이것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한다. 이 존재는 지금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자식으로, 종으로 삼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고통당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된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이 상태가 되면 못 막는 것이다. 더 심해지게 되면 귀신을 보게 되고, 귀신과 대화하고, 그런 정도까지 되어 버린다.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벽에서 귀신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나. 이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 더 심해지면 완전히 귀신들려서, 목소리도 이상하게 바뀌고, 몸도 이상하게 되어 버린다. 귀신들린 무당은 그래서 작두를 탄다. 작두 위에서 뛰는데도 안 다친다. 귀신들린 사람은 희한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오늘 본문의 사람도 그런 상태

다. 쇠사슬로 결박해도 끊어버릴 정도였다. 얼마나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자기 몸을 밥맛으로 학대했다고 했다. 아무도 말릴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거리다. 사람을 절대 편안하게 두지 않는다. 계속 괴롭히는 것이다.

최초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였다. 방학에 집에 내려갔더니,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귀신들려서 날뛰는 것이다. 감씨 집성촌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날뛰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붙잡고 묶어놓는데, 팔 한 번 휘두르면 그 묶었던 줄이 다 끊어져 버린다. 한 번 뿌리치면 장정 너댓 사람이 다 나가떨어진다. 여기를 가 보라는 것이다. 야단이 났는데 가보라는 것이다. 고민이 되더라. (웃음) 쫓아내면 다행인데 못 쫓아내면 어떡하나. 모든 것이 들뜬나게 생겼으니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니까 여자가 쑥 한 번 쳐다보더라. 거기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다. 메시지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기에 딱 붙잡고 명령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였지만, ‘앉아!’ 하고 명령했다. 귀신한테 명령을 한 것이다. 예배드리고 신앙고백을 하는데 여자가 스르르 잠들더니, 깨어나서는 온전하게 되었다. 귀신이 떠나가더라. 조용히 떠나갔다. 진짜 맥을 못추더라. ‘앉아!’ 했더니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쳐다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어제 저녁에 한 짓거리를 귀신들린 여자가 다 말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 못 하는 모양인데,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된다. 그 이후에 이 아주머니는 새벽 4시 반만 되면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종을 울리는 분이 되었다. 귀신들리던 못 말린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 그 조그마한 아주머니가 다섯 장정을 다 날려버리는 정도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현장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 지역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꼼짝도 못 했다. “왜 때도 안 되었는데 와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이것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라틴어로 ‘군단’이라고 번역하는 말이다. 병사 숫자로 따져서, 그 당시 편제로 ‘레기온’이라 하면 오늘날의 여단 급이다. 6천 마리 귀신이 그 안에 있으니 얼마나 이상해졌겠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전도, 선교 현장에 너무 많다.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시기 바란다. 이런 세상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자세히 진단하면 된다. 12가지로 진단하는 것이다. 창3장이구나, 6장이구나, 11장이구나, 행13장이구나, 16장, 19장이구나,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구나 하고 보게 되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복음이 필요하다. 나도 이번에 입원했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기도도 안 나오는 지경이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오더니 장티푸스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야단을 쳤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여기 드나드는 사람이 다 전염됐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가 저절로 되기 시작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장티푸스도 상관없어, 예수 이름으로 몰려가라.” 이것을 가지고 결박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열도 내리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진짜 할걸. (웃음) 처음에는 기도도 못하다가 장티푸스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하게 된 것이다. 아직은 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 설교할 정도는 된다. 예수님은 역시 그리스도다. 두려워하지 마라.

(2) 두 번째는 육신의 문제다. 혈투증 걸린 여인이 있는데, 계속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 열병도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더라. 간염 같다, 폐렴 같다 하다가, 장티푸스다 하더니, 뭐라고 하는지 여러 질병을 대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웃음) 열병의 70%는 원인을 모른다고 한다. 나중에서야 의사가 봉와직염이라고 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열이 올라서 앓을 먹었다. 미리 기도해야 한다. 고통당할 때 미리 기도해라. 다 당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웃음) 원인 모르는 병이 너무 많다. 응급실은 전쟁터였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외국에 다녀왔다 했더니 이상한 병일수도 있다 해서 다른 방에 격리되어서 수용되었다. 다른 응급실 환자들은 그냥 바닥에 누고 복도에 누고 소리 지르는데 야단이었다. 중환자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 생기는데, 안타깝지만 이것이 불신자 상태의 현장이다. 운명이다.

(3) 세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다. 예수님이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길을 가기가 힘들 정도였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결국 아이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신 것이다. 히브리서 9:27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모든 불신자에게 동일하다. 지옥이다.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

나도 죽음이 임박한 경험을 해 봤는데, 깊은 숨을 쉬려고 하니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이다. 공기가 폐로 안 내려가는 것이다. 이러다가 죽는 것인가 싶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천국 가면 좋아할 사람 몇 명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웃음) 그리고 드는 생각이, '죽어도 괜찮다. 이제 천국 가겠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더 이상 미운 사람 안 보고, 시기질투 꼬라지 안 보고,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얼마나 좋냐?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죽음을 환영하면 된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6:13에서 말씀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의 죽음을 어여뻐 보신다고 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한다. 장수가 그리 축복이 아니다. 요양병원에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다가 사고를 치니까 묶이고,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뭘 하겠는가. 적당한 나이에 천국 가는 것이 좋다. 왜 이 땅에서 멸시천대 모멸을 당할 것인가.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란다. 지금 사망의 문제는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실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면서 참된 해답을 전달하는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우리가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근원의 문제, 문화화된 문제를 보게 되었다. 세상 임금이 사탄이니까, 문제만 생기면 덮고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이것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성주군민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가 성주참회는 다 사드리겠다. (웃음) 원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

2.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치유하셨다. 귀신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도, 혈루증 걸린 여인도, 회당장 아이로의 딸도, 예수님을 만나서 전부 치유받았다.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이 꺾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1) 귀신들려 고통당하는 정신 문제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니까 귀신이 벌써 알아보고, 제 발로 와서 항복한 것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항복하기를 바란다. 원수는 이제 우리에게 꺾은 안 된다. (웃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3:15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8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의 참 왕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2:14에, 마귀를 없애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두목인 마귀를 박살내셨으니, 그 부하인 귀신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해방받으시기 바란다. 귀신에게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명령하시기 바란다. 한 번만 불러서 꺾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귀신이 겁나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달라붙어도 못 이기던 귀신이 항복해 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나는 귀신을 겁내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권세의 이름이다. 우리가 그의 자녀다.

(2) 육신 문제는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죄로 인해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셨다고 했다. 사53:5-6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결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질병에 대해서까지도 짊어지셔서, 우리를 고쳐 주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의 문제가 깨끗이,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어 버린 것이다. 마가복음 5:29에 말씀했다. 혈루 근원이 나아 버린 것이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 고통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없애 버리시고 치유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믿어야 한다.

(3)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예수님은 죽으신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 버리셨다. 베드로전서 3:18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으로 갈 길을 열어 주셨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의 권세도 무너져 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냐?" 죽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피로움, 고통, 슬픔, 모든 상처를 끝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요단강은 건너야 한다. 그래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 날이 오거든 기다려라. "하나님, 그동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할 믿음의 식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찬송을 들으며 주님 나라 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감고 기다려라. 떠 보면 어디인가? 천국이다. 안 가봐서 잘 모르니까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웃음) 세상의 무엇과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세상에 집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집을 주신다고 했다. 이 나라에는 가난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오라는 것이다. 넉넉한 집이 있으니까. 문패를 잘 찾아와라. (웃음) 아이로의 딸이 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달리다굽,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에 소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난 것이다. 이 한 마디에 죽음이 떠나가 버렸다. 육신의 죽음이 해결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는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서 이 소녀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4)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경은 말씀한다. 간단하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겠네!" 믿기만 하면 된다. 돈 1억 안 내도 된다. 현금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도 널 때는 내야지. 그렇게 쌓아놓고 언제 쓰려고. (웃음) 100일 동안 새벽기도 해야 천국간다는 그런 말이 없다. 믿기만 하라.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해방되었음을 믿는다. 죽음 이기신 주님, 사탄 이기신 주님, 질병을 이미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누리는 행복한 하루, 행복한 남은 생애 되시기를 축복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복음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다. 세상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극좌는 나는 절대 싫다. 극우는 절대 싫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못 살린다. 정말 미래 지도자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남북과 동서와 모든 민족을 감싸 안는 사람이어야 한다. 새로 나라에 들어오는 다민족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지도자, 통근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가 중요하다. 깊은 기도가 된지 정말 체험해 보자는 것이다. 신학교 가서 주의 종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분, 기도제목 세 가지로 붙잡아야 한다.

(1) 지금 사탄은 세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귀신들리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었다. 렘넌트에게 귀신 문화를 점점 심는다. 우상 종교를 가지고 범죄를 점점 일으키도록 만든다. 이것을 이길 렘넌트 운동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진짜 3단체 이길 복음 엘리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렘넌트를 치유할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2) 지역과 전도 현장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 이들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치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마음이 병든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치유 전도, 복음 복지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꼭 우리 교회만 하지는 것이 아니다. 전국 세계에서 이 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다가 이 세상을 치유하자는 것이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게 되기를 바란다.

(3) 세 번째 기도제목은, 결국 복음만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마귀에게 놀린 사람들을 건져내는 센터가 되기를 바란다. 진짜 지역을 치유하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문을 여실 것이다. 치유 전도운동의 기도제목은 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란다.

말씀을 마치겠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막5:19에 보니까, 주님은 이 병든 현장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다. 우리에게 현장을 보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전도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병든 시대와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자.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미래가 캄캄한 저희들에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원초적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를 넘어서서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지역 사회를 치유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